



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26일 목요일 음 12월 1일 (8월)

기상정보

흐리고 가끔 비



제주도는 흐리고 새벽부터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산지에는 오후부터 가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60% probability for rain, snow, and sleet.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07:36) and moonrise (07:24).

Table with 2 columns: 주간예보,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and temperature for the next two days.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Rows show health and safety weather info.

월드뉴스

韓日전문가 “양국 정상회담, 관계개선 계기”

“아직 낙관하기는 어려워”



약수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중국 청두에서 24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전문가들은 대체로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사바 유키 도시샤대 교수(한국정치)도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두 정상이 대립으로 남겨 놓고 서로 만나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여준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징용 문제를 놓고 양측이 원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안이(安易)한 타협을 하지 않았으며 일본 입장에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태평양전쟁 이후의 국제질서를 뒤집는 것을 의미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덕민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25일 자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에서 떠오른 것이 중일(中日) 관계가 열여섯 번이었던 2014년 11월의 아베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이라며 “약 3년 만의 당시 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 악화에 제동이 걸린 것처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러 “강제징용 피해자 및 수출 규제 등 현안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두 정상이 한자리에서 한일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fax, and website details.

목요일론



이 경 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2020년 여행전망이 나왔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17일, 6가지 키워드로 REFORM을 제시했다. 기술과 플랫폼의 진화를 통해 내게 더 맞는 여행이라는 의미로 제시된 REFORM은

웰컴 제주를 준비하자

Technology), 짧게 자주 떠나는 여행의 일상화(Make Trips Nearby)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한마디로 관광객의 취향이 세분화돼 개인맞춤형 여행선호가 더욱 늘어나고 스마트관광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로 발표되었다.

몇 년 전부터 관광전문가들은 이전 여행의 경계가 허물어졌다고들 얘기해 왔다. 이제 관광은 관광지, 관광산업을 넘어 일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화에 유연히 대처하기 위해서 제주 관광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제주관광의 스펙트럼을 넓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관광객과 주민의 요구에 부합된 균형적인 정책생산과 행정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제주경제의 버팀목이 관광이라는 데 내년도 관광예산의 편성부터가 기대에 못 미친다. 적재적소의 예산 편성과 재정투입대비 성과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몇 해 전 한반도에 불어닥친 사드 이슈는 제주를 방문하는 입도 해외관광시장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전체를 침체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기술 기회삼아 제주관광의 체질개선과 질적관광으로 전환한다더니 중국 사드국면의 장기화에 따른 관광경기 침체 위기 속에 그 다짐은 사그라들

어버렸다. 또한 얼마 전까지도 제주의 과잉 관광도 얘기돼왔지만, 양적성장으로 인한 성장통을 만회하고, 관광이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마저 방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전환시킬만한 해결책을 마련한 것도 아니다.

관광객과 주민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관광이란 미래가 어둡다.

2020 제주관광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관광산업을 둘러싼 환경과 기술, 관광객과 주민들의 요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 관광정책은 다시금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우선, 2020년 한 해 관광키워드에 맞춰 관광객과 주민 모두를 위한 웰컴 제주를 준비하자.

열린마당

연말연시 술자리 제대로 알고 즐기자



고 광 언 (사)제주 중독예방교육원장·중독전문가

연말연시가 되면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많아지면서 술자리도 늘게 된다. 오랜 기간 사람들은 즐겁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힘들 때 혹은 여러 모임에서 음주를 해왔다.

술이 없으면 쌓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없다. 아색한 첫 대면이나 소원한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술은 인간 생활의 윤희물이다.

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술을 많이 마시는 걸 자량으로 삼고 술에 잘못 빠져 들면 몸도 마음도 상한다. 그래서 건강·생명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 파탄이 오는 수가 많다.

음주 운전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나친 과음은 간 및 위장질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심근기능을 저하시켜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고 관동맥 경련에 의한 협심증, 부정맥 및 급사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과음은 다음날 숙취로 인해 신체리듬이 깨지고 일의 능률을 저하시킬뿐만 아니라 행동에 문제를 일으켜 폭력 등 다양한 사건·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럼 ‘술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가?’ 예로부터 술에 관한 비법들이 많이 전해오지만 술은 자기 체질에 따라 적정하게 마시는 것이 상책이다.

연말연시 모임에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한다면 충분한 물과 함께 될 수 있으면 도수가 낮은 술을 천천히 소량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술잔을 돌리거나, 폭탄주 같은 주법을 버리고 마셔야 한다.

특히 술을 마시게 된 날은 평소보다 피로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숙면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경자년에는 퍼스트 펭귄이 돼보자



오 선 아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20회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펭귄수영대회가 경자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열린다.

행사 준비가 한창인 요즘 유연히 펭귄수영대회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다가 퍼스트펭귄에 대해 알게 됐다.

퍼스트펭귄은 펭귄의 습성에서 따온 말로 남극의 펭귄들은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먹이를 찾아 바다로 모여 들지만 정작 바다에 뛰어들기 직전에는 일제히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모두 머뭇거리고 있다.

바다 속에는 먹이가 많이 있지만 동시에 위험한 물개나 바다표범 같은 천적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머뭇거리려는 퍼스트 펭귄이 되도록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본다.

공직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성공,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것이든 새로운 시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할 것이다.

공직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성공,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것이든 새로운 시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할 것이다.

공직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성공,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것이든 새로운 시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할 것이다.

공직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성공,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것이든 새로운 시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할 것이다.

Cheilsa advertisement featuring a man in a suit, a price list for various food items, and a map of the location in Jeju City.

Dimchae advertisement for Wunia Dimchae, featuring images of various refrigerators and a list of products like kimchi, air purifiers, and washing machines.